

동방신기 팬들 SM타운라이브 취소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

입력 2009. 9. 3. 11:01 · 수정 2009. 9. 3. 11:01



[뉴스엔 김형우 기자]동방신기 팬들이 SM타운 라이브09 개최 취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SM 측에 요구했다.

동방신기 팬 사이트 동네방네 회원 1,222명은 9월3일 "2009년 8월16일 개최 예정이던 SM타운 라이브09의 SM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자진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한 SM의 공식사과와 SM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이번 SM타운 라이브09 입장료의 10% 배상"를 요구했다.

또 "동방신기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연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입장표명을 했고 SM 측에서도 세 멤버의 가처분신청과는 상관없이 공연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8월9일 공연 일주일 전 동방신기 소송문제로 이 상태로는 소속 가수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이번 콘서트를 잠정 연기했다"며 "답변이 없을 시에는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예정대로 접수해 소비자 권리를 찾겠다. 대한민국 최고 연예기획사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측은 이와 더불어 9월8일까지 대책이 없을시 9월9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김형우 cox109@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